

# 경기도 지역의 마약류 약물에 대한 인식도 조사와 향후 정책방향성에 대한 연구

김이항, 문승완, 이정근\*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2017년 4월 26일 접수 · 2017년 5월 20일 수정 · 2017년 5월 23일 승인)

##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Narcotic Drugs at Gyeonggi Province in Korea and Future Policy Direction

Lee Hang Kim, Seung Wan Mun, and Jung Keun Lee\*

Gyeonggi Branch of 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Republic of Korea

(Received April 26, 2017 · Revised May 20, 2017 · Accepted May 23, 2017)

### ABSTRACT

#### Keywords:

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Youth  
Drugs  
Addictive drugs  
Prevention education  
Counseling  
Rehabilitation

**Background:** After the branch of 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was established in Gyeonggi Province, the prevention education for drugs and addictive drugs was conducted for teenagers and the general public every year. It is conducting a publicity campaign to prevent drug abuse, counseling services, treatment, rehabilitation, and drug abuse.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obtain the data for prevention education and treatment, rehabilitation and various policies in the future through identification and characteristics of narcotics and drug abuse in daily life of Gyeonggi Province. **Method:** We conducted surveys of participants in local festivals and publicity campaigns such as health festivals, art festivals, and fairs held in each region of Gyeonggi Province for 2016, and conducted a large-scale study of 5308 people. **Results:** The public perception of drug abuse and drug side effects has improved and that the drug has a serious impact not only on physical and psychological side effects but also on society as a whole. The need for intervention in the treatment process by specialist agencies and the importance of preventive action by the social safety net have been emphasized. **Conclusion:** In order to meet the needs of local residents and fulfill their social role as a therapeutic rehabilitation and preventive education institution, we propose the following: Promotion of public relations projects through cyber space and on-site campaign; to develop specialized programs to help the institution to treat, rehabilitate and return to the community.

### 서 론

2004년, 경기도약사회의 후원으로 경기지역 약사들이 주도하여 사회공헌사업의 한 형태로 ‘마약 없는 밝은 경기’를 실현하고자 경기도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설립된 후, 매년

청소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마약류와 중독성 약물에 대한 예방교육을 진행했으며 관련된 사법기관과 연계하여 불법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 재활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경기도 전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 교육청, 그리고 지역약사회와 협조하여 마약류와 중독성 약물

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교육하고 약물에 의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홍보캠페인을 적극 실시중이다.

경기도 마약퇴치운동본부가 2016년 한 해 동안 경기도 각 지역에서 개최되었던 건강축제, 예술제, 박람회 등 여러 형태의 지역축제에서 진행한 홍보캠페인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분석하였는데, 이는 유효표본이 5,308명에 이르는 대규모 연구이며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통하여 경기도 지역주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연령별, 지역별, 그리고 직업별 특징을 분석하여 향후 예방교육과 치료재활 등의 사업과 다양한 정책수립 등을 위한 일종의 빅데이터(big data)를 얻고자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과제를 실시함으로써,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propofol) 등 최근에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던 약물들에 대해 지역 주민의 인식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고, 심리적 손상, 분노조절실패 등 신체적, 심리적 부작용뿐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식하였으며 전문기관에 의한 개입, 치료의 필요성 그리고 근본적으로 사회적 안전망에 의하여 교육과 캠페인 등 예방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치료재활 및 예방교육 전문기관으로써 경기도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관련기관의 협조 등을 통하여 사회적인 역할 수행에 대한 사업방향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연구방법

### 1. 연구의 설계

연구대상은 경기도내 10대 이상의 성인 남녀 5,308명이었으며, 지역축제 참가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마약퇴치운동

본부에서 설문조사형태로 2016년 4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실시하고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내용은 모두 10개 항목으로 구성하였고, 8개 주제를 포함하였다. 주로 마약류 약물과 중독치료기관의 존재 그리고 약물남용의 신체적, 심리적 피해 등에 대하여 인식하는 정도에 대해서, 중독문제에 대한 본질적 이해정도와 궁극적으로 마약류 및 약물남용 확산방지 대안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 연구결과

### 1. 연구대상자의 특성

응답자의 성별분포는 64.6%가 여성, 35.5%가 남성으로써 여성이 약 2배였으며 연령분포는 10대와 30대, 그리고 40대가 주류였다. 각 지자체의 인구수와 지역축제의 규모에 따라 지역별 표본수는 차이가 있었고, 직업별로는 주부, 회사원 그리고 학생 순으로 많았다. 총 10개의 항목을 8개로 분류하여 결과를 표시하였는데, 문항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1 마약류 구분정도

언론매체를 통해서 일반인에게 자주 노출된 중독성 약물과 술, 담배를 포함한 물질 중에서 ‘대마’(72.10%), ‘공업용 본드’(58.70%), ‘프로포폴’(54.90%) 등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 외 엑스터시(46.20%), 향정신성의약품(46.00%), 담배(42.70%), 부탄가스(42.20%)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의약품의 경우는 대부분(92%)의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마약류와 의약품을 충분히 구분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에 향정신성 의약품(수면제, 공부 잘하는 약, 다이어트약 등)의 부작용 문제가 크게 대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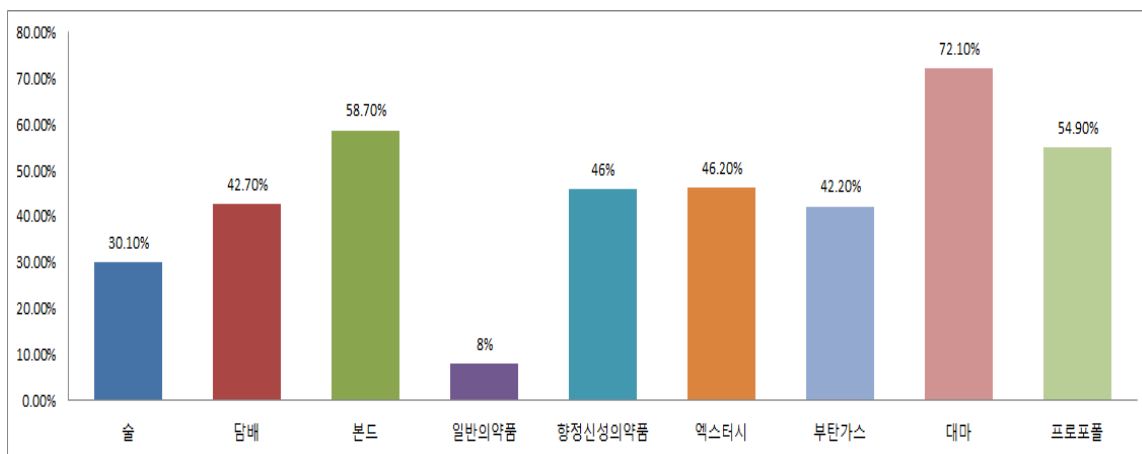


Fig. 1. Classification of narcotic drugs

됨에 따라 이를 마약류로 인식 중이었다. 담배는 40%가 넘는 사람들이 표시하였는데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금연정책에 의해 담배의 부정적 영향(금단증상, 신체적 피해 등)이 대중에게 많이 홍보된 결과라고 판단되며 예전에는 마약류로 구분하기 어려웠던 담배가 이제는 마약류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술은 30% 사람들만이 표시하였는데 아직까지는 술이 담배와 더불어 마약류로까지는 인식되는 양상을 나타내며 향후 술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금주정책 및 홍보캠페인이 요청된다(Fig. 1).

### 1.2 마약류 사용자 및 약물남용자 접촉 여부

남녀 모두 주변에서 마약류 및 약물남용 사실을 듣거나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의 지인 중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약물남용자를 만나거나, 관련 소식을 직접적으로 접한 경우가 적었다. 전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마약류 및 약물남용과 관련된 정보에 조금 더 익숙하였다. 연령별로는 50대에서 답변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60대, 10대, 20대 순이었다. 이는 50대가 마약류 및 약물남용자와 관련된 정보에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10대와 20대가 그 다음으로 많았는데 이는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안산이 마약류 및 약물 남용자와 관련된 정보에 가장 밀접한 것으로 나타났고 부천, 동두천, 화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은 의왕, 이천, 파주, 평택, 성남, 수원, 오산, 군포, 하남, 안양 순이었다. 안산을 비롯해 높게 나온 지역은 최근 외국인 노동자의 약물남용 문제가 언론을 통해 많이 부각되었고 큰 사건사고를 겪으며 약물사용자가 실제 증가한 것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많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Table 1).

### 1.3 약물중독치료 관련 기관에 대한 인지도

남녀간 차이는 크지 않았고, 연령은 전체적으로 30% 안팎으로 비슷한 인지도를 보였다. 경기도민의 1/3이 약물중독치료 기관에 대해 인지했고 이는 10대, 60대, 50대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30대, 40대, 20대 순이었다. 가장 높은 10대와 가장 낮은 20대를 비교하면 9.6% 차이가 있었는데 20대를 대상으로 한 치료, 교육 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지역별로는 안양과 안산이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였으며, 성남, 하남, 화성, 파주, 이천, 오산, 동두천, 의왕, 부천, 평택, 군포, 수원 순이었다. 가장 높은 수치였던 안양, 안산과 가장 낮은 수치였던 수원을 비교할 때 14% 차이가 있었기에 낮은 수치를 기록한 지역에 대한 경기도 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전문기관의 홍보

**Table 1.** Contact with narcotic drug users and drug abusers

Characteristics	Rate of respondent (%)	
	Yes	No
Sex	Total	
	Male	18.2
Age	Female	81.8
	10s	14.5
Age	20s	85.5
	30s	17.5
	40s	14.3
	50s	85.7
	60s	9.2
	≥60s	90.8
Residential area	12.4	87.6
	24.1	75.9
	23.5	76.5
	Suwon	14.7
	Hwaseong	85.3
	Gunpo	19.0
	Pyeongtaek	81.0
	Icheon	14.3
	Osan	85.7
	Paju	14.3
	Dongducheon	84.4
	Anyang	15.6
	Uywang	17.5
	Ansan	82.5
Occupation	Hanam	14.4
	Seongnam	85.6
	Bucheon	16.8
	Student	83.2
	Company employee	19.4
	Self-employed	80.6
	Housewife	12.6
Etc.	Unemployed	87.4
	17.3	82.7
	24.6	75.4
	7.3	92.7
	17.3	82.7

및 사업 전개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직업별로는 학생이 약물중독치료 관련 기관에 대해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었다. 그 다음은 기타, 회사원, 자영업, 주부, 무직 순이었다.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한 학생군과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한 무직군을 비교했을 때, 약 9% 차이를 보였다(Table 2).

### 1.4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

#### 1.4.1 거주지역에 따른 심각성 인식도

종합결과는 4개의 Likert 척도를 ‘심각하다’와 ‘심각하지 않다’로 양분하여 보기 쉽게 표현한 것으로써 ‘심각하다’와 ‘조금 있다’를 ‘심각’으로, ‘별로 없다’와 ‘잘 모르겠다’를 ‘심각 안함’으로 표시하였다. 대부분 지역에서 심각하

**Table 2.** Awareness rate of the institutions for drug addiction treatment

Characteristics		Rate of respondent (%)	
Total		Yes	No
Sex	Male	32,6	67,4
	Female	28,6	71,4
Age	10s	34,7	65,3
	20s	25,1	74,9
	30s	27,0	73,0
	40s	26,3	73,7
	50s	32,6	67,4
	≥60s	33,4	66,6
Residential area	Suwon	25,4	74,6
	Hwaseong	33,9	66,1
	Gunpo	26,3	73,7
	Pyeongtaek	27,6	72,4
	Icheon	32,7	67,3
	Osan	32,2	67,8
	Paju	33,0	67,0
	Dongducheon	31,3	68,7
	Anyang	39,0	61,0
	Uywang	30,9	69,1
	Ansan	39,0	61,0
	Hanam	34,1	65,9
	Seongnam	38,2	61,8
	Bucheon	27,7	72,3
Occupation	Student	34,3	65,7
	Company employee	28,8	71,2
	Self-employed	28,4	71,6
	Housewife	26,8	73,2
	Unemployed	25,1	74,9
	Etc.	32,5	67,5

지 않다고 보고했으며, 의왕, 이천, 수원 순으로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Fig. 3). 50대가 가장 많이 ‘심각하다’라고 답변하였고 30대가 가장 많이 ‘심각하지 않다’라고 답변하였다. 대부분의 직업군에서 70% 넘는 사람들이 ‘심각하지 않다’라고 답변하였다. ‘심각하다’라고 답변한 사람들 중 자영업 군에서 심각성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왔다(Fig. 4).

#### 1.4.2 사회전반에 대한 심각성 인식도

지역별로는 사회 전반의 심각성에 대해 ‘심각하다’ 고 답한 지역 중 부천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화성, 의

**Table 3.** Recognition of seriousness in society as a whole

Characteristics		Rate of respondent (%)		
Total		A, Serious	B, Not serious	C, Do not know
Sex	Male	52,2	18,1	29,7
	Female	57,4	11,7	30,9
Age	10s	50,4	8,6	41,0
	20s	45,6	18,9	35,5
	30s	55,3	15,2	29,5
	40s	57,9	17,8	24,3
	50s	64,2	11,1	24,6
	≥60s	56,7	15,1	28,2
Residential area	Suwon	55,1	15,0	29,9
	Hwaseong	50,0	13,8	36,2
	Gunpo	56,4	13,0	30,7
	Pyeongtaek	58,3	14,3	27,4
	Icheon	59,1	15,2	25,7
	Osan	52,4	18,5	29,1
	Paju	55,8	8,6	35,5
	Dongducheon	53,9	14,7	31,3
	Anyang	52,0	12,3	35,7
	Uywang	49,7	17,0	33,3
	Ansan	54,8	5,9	39,3
	Hanam	56,7	12,7	30,6
	Seongnam	54,1	18,5	27,5
	Bucheon	63,9	10,8	25,3
Occupation	Student	49,5	9,6	40,9
	Company employee	54,9	19,4	25,8
	Self-employed	59,1	15,3	25,6
	Housewife	61,3	12,5	26,2
	Unemployed	55,3	16,2	28,5
	Etc.	55,5	13,7	30,8

왕이 가장 낮았는데 대다수 시민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심각하다고 인식하였다(Table 3). 연령별로는 50대, 40대, 60대 순으로 ‘심각하다’라고 답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30대, 10대, 20대 순이었다. ‘심각하지 않다’에는 20대가 가장 많은 답변율을 기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10대, 30대 순이었다. ‘심각하다’로 주부, 자영업, 기타 군에서 가장 많은 답변율을 기록하였고, ‘심각하지 않다’에서는 학생, 회사원, 무직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인 거주지역내에서의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지역, 성별, 연령별 큰 편차 없이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이 우세하였지만 우리 사회 전반으로 그 영역을 확장했을 경우에는 심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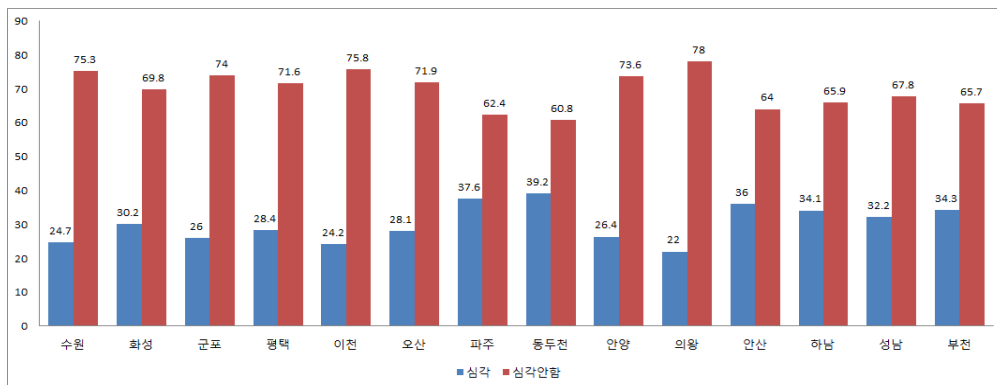


Fig. 3. Perceptions of severity by residential a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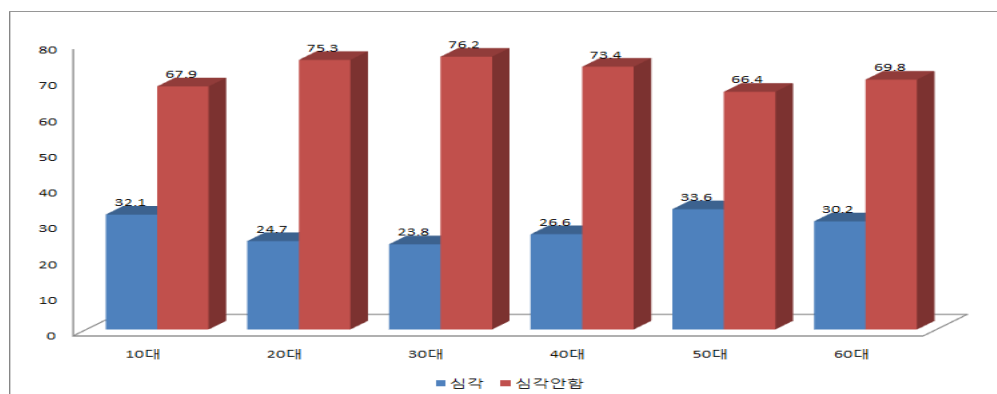


Fig. 4. Perceptions of severity by 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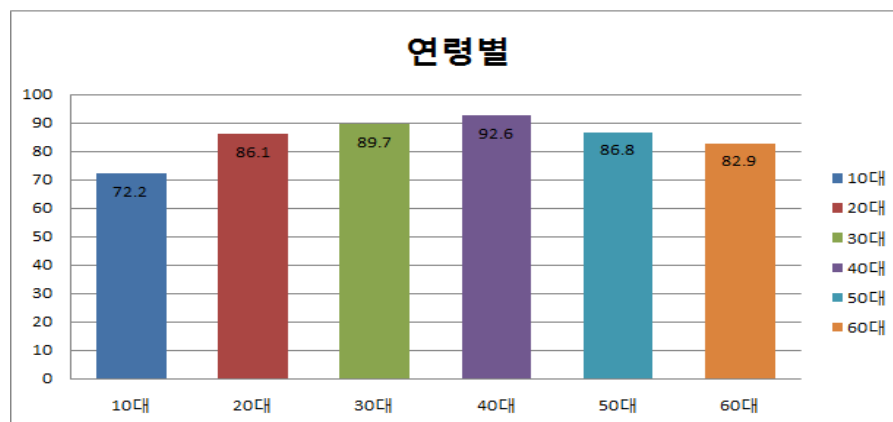


Fig. 5. Recognition of legal penalties for the use of narcotics

하다는 의견이(55.5%) 오히려 더 많았다(Table 3). 이는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마약류 및 약물남용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결과로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우리 주위에서 발생하고 있는 약물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1.5 마약류 사용의 신체적, 심리적 피해 인식

마약류 사용으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피해는 주로 뇌손상(65.2%), 분노조절실패(64.8%) 라고 답하였고, 그 외 신경쇠약(47%), 기억력감퇴(45.4%), 우울한 기분(43.8%) 등이었다. 결국 마약류 사용자를 바라보는 일반적 인식은 신체적으로는 두뇌가 손상되고 심리적으로는 분노조절에 실패



패하는 사람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 1.6 마약류 사용으로 인한 법적처벌에 대한 인식

성별로는 남녀 모두 마약류 사용으로 인한 처벌에 대해서는 약 85% 정도가 찬성하였다. 또한, 연령대별로는 40대가 마약류 사용이 처벌 대상임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30대, 50대, 20대 순으로 나타났다. 10대가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Fig. 5). 지역별로는 부천시 처벌에 대한 인식이 가장 뚜렷한 것으로 보여 91%를 기록하였다. 다음으로 군포, 이천, 성남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80%가 넘는 높은 비율을 보여 경기도 전역에서 마약류 사용이 법적으로 처벌 대상임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 1.7 마약류 중독에 대한 이해정도

#### 1.7.1 마약류 중독에 대한 관점

90% 가 넘는 비율로, 남녀 모두 마약류 중독이 병이라는 질문에 ‘예’ 라고 답변하였고, 전 연령 중에 30대, 40대가 가장 높은 응답률이었고 다음으로 50대, 20대, 60대, 10대 순이었다. 대부분 연령에서 90% 넘는 답변률을 보면 마약류 중독을 ‘질병’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지역별로 이천이 97%로 ‘예’ 라는 답변율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부천, 군포, 성남 순이었다. 가장 낮은 인식도는 의왕이었는데 89%를 나타냈으므로 전체적으로 마약류 중독을 ‘질병’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회사원 직업군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예’ 라고 답변하였다. 다음으로 주부, 자영업 순이었다. 무직과 학생 직업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결국 마약류의 사용은 결국 전문적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93.2%로써 마약류 사용은 병이며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었다(Table 4).

#### 1.7.2 마약중독자가 마약을 하는 이유에 대한 이해

남녀 모두 ‘좌절될 때’를 마약중독자가 마약을 하는 이유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 수치는 40%가 넘었다. 다음으로 ‘외로울 때’를 공통으로 꼽았으며, 다음으로는 화가 날 때, ‘심심할 때’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를 연령별로 분석했을 때에도 마약을 하는 이유로 ‘좌절될 때’를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외로울 때’가 많았다. 마약을 하는 이유로 ‘좌절될 때’는 10대에서 가장 많이 답하였고, ‘화가 날 때’도 10대에서 가장 많이 답하였다. ‘외로울 때’와 ‘심심할 때’는 20대에서 가장 많이 답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좌절될 때’와 ‘외로울 때’ 마약을 사용한다는 이유가 많았다. ‘좌절될 때’는 하남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화가 날 때’는 의왕과 파주에서 가장 많이 답하였다.

**Table 4.** Opinions that drug addiction is a disease

Characteristics	Rate of respondent (%)	
	Yes	No
Sex	Total	
	Male	91.7
Age	Female	8.3
	10s	94.0
Age	20s	88.2
	30s	11.8
	40s	91.1
	50s	8.9
	60s	97.0
	≥60s	3.0
Residential area	Suwon	97.0
	Hwaseong	3.0
	Gunpo	93.8
	Pyeongtaek	6.2
	Icheon	93.7
	Osan	6.3
	Paju	91.4
	Dongducheon	8.6
	Anyang	91.2
	Uywang	8.8
	Ansan	7.4
	Hanam	10.9
	Seongnam	89.1
	Bucheon	10.9
Occupation	Student	90.8
	Company employee	9.2
	Self-employed	92.9
	Housewife	7.1
	Unemployed	5.6
	Etc.	4.2

‘외로울 때’는 군포에서 가장 많이 답하였고, ‘심심할 때’는 의왕에서 가장 많이 답하였다. 직업별로는, 전 직업에서 ‘좌절 될때’가 가장 높은 비율로 답변하였으며 다음으로 ‘외로울 때’로 나타났다. 직업 군 별로 3순위~5순위가 다르게 나왔는데 자영업과 회사원, 기타 군에서는 ‘심심할 때’가 3순위로, 주부, 학생, 무직 군에서는 ‘화가날때’가 3순위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 1.8 마약류 및 약물남용 확산 방지 대안

남녀 모두 ‘예방교육’을 확산 방지 대안 1순위로 꼽았다. 그 다음으로 ‘처벌강화’, ‘홍보캠페인’, ‘사회복지 지원강화’로 남녀 모두 같은 답변률을 보였다. 연령별로 보면, 60대가

**Table 5.** Alternatives to Prevent Drug and Substance Abuse Prevention

Characteristics		Rate of respondent (%)			
	Total	Preventive education	PR campaign	Strengthening punishment	Support for social return
Sex	Male	43.2	19.3	22.9	14.6
	Female	42.9	20.1	22.0	14.9
Age	10s	41.9	15.9	24.9	17.3
	20s	28.2	12.7	40.0	18.9
	30s	39.6	18.1	27.9	14.4
	40s	45.1	19.2	22.0	13.7
	50s	47.5	27.4	11.8	13.3
	≥60s	48.3	27.3	11.7	12.7
Residential area	Suwon	39.1	25.0	20.8	15.1
	Hwaseong	43.4	15.3	27.0	14.3
	Gunpo	47.2	17.5	19.2	16.0
	Pyeongtaek	46.8	18.8	22.2	12.2
	Icheon	46.8	19.0	20.1	14.1
	Osan	42.8	23.6	18.8	14.7
	Paju	37.6	21.3	27.9	13.2
	Dongducheon	41.0	16.6	27.6	14.7
	Anyang	39.4	14.9	28.6	17.1
	Uywang	49.7	18.2	15.2	17.0
	Ansan	50.0	11.8	24.3	14.0
	Hanam	39.7	16.3	26.2	17.9
	Seongnam	46.8	20.2	21.0	12.0
	Bucheon	34.9	18.1	26.5	20.5
Occupation	Student	40.6	15.5	26.2	17.7
	Company employee	40.3	20.4	24.9	14.4
	Self-employed	51.1	21.3	15.6	12.1
	Housewife	46.5	21.4	19.4	12.7
	Unemployed	46.4	25.7	12.3	15.6
	Etc.	41.7	21.8	21.2	15.3

가장 많이 ‘예방교육’을 답변하였으며, 다음으로 50대, 40대 순으로 나타났다. 20대는 ‘예방교육’에 대한 답변률이 가장 낮았고, ‘처벌강화’에 대해 답변한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았다. 지역별 역시 전반적으로 ‘예방교육’을 1순위로 꼽았다. 2순위로는 ‘처벌강화’가 대부분이었다. 전체 지역에서 1/3이 넘는 수가 확산방지 대안으로 ‘예방교육’을 선택하였다. 안산, 의왕 지역은 50%에 가까운 비율이 ‘예방교육’을 1순위 대안으로 꼽았으며, 다른 지역들도 35% 이상이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직업별로도 전 직업군에서 ‘예방교육’에 대한 부분이 대안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지목되었다. ‘처벌강화’와 ‘사회복귀 지원 강화’는 학생 군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홍보캠페인’은 무직군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Table 5).

## 고 찰

이미 지난 2016년 ‘마약류 및 중독성 약물에 대한 10대 청소년과 성인의 인식 차이에 대한 연구(2016.6. 수원시약사회 박현미, 박현정, 김성남)’를 통하여 경기도청에서 개최된 2016 벚꽃축제에 참여한 100여명의 소그룹을 대상으로 연령별 마약류에 대한 인식조사를 분석한 자료가 발표된 것은 있지만 이번 연구는 그 대상지역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여 총 유효표본 5,308명에 이르는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연령별, 직업별, 지역별 인식도 차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빅데이터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서론에서도 밝혔지만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는 경기도약사회원들의 재정적인 후원과 교육 및 치료재활 사업에 재능기부

를 통하여 직접 활동을 펼치고 있는 많은 약사활동가들에 의해 운영되는 NGO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조직체계 내에는 상담과 사회복지를 전공한 상담사들이 전문상담을 진행중이며 연관단체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는 아웃소싱을 통해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의 기초자료가 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향후 경기도 지역에서의 마약퇴치운동 나아가야 할 방향과 중점적으로 진행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홍보사업의 활성화와 다각화이다. ‘마약 없는 밝은 경기’를 위하여 마약 퇴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고취시키고 마약류와 중독성약물의 위험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이 홍보사업이다. 홍보는 크게 현장에서 직접 대상을 만나서 진행하는 방법과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한 사이버홍보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세계마약퇴치의 날’ 등과 같이 특정일에 의미를 부여하여 많은 인원이 모이는 장소에서 캠페인을 개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건강축제 등과 같은 지역 주민 밀착형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가하여 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또한 주기적으로 특정 장소에서 특정 target층을 목표로 하여 특정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는 홍보활동은 오히려 효율적일 수도 있다. 과거 안산지역에서 청소년의 흡입제를 주제로 매월 1회 실시하였던 ‘거리이동상담’과 같은 형태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사이버홍보는 홈페이지와 SNS 등의 매체를 활용한 소식전달 및 이벤트를 통하여 보다 많은 대상에게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모전 개최나 심포지엄 개최 등은 콘텐츠 확충의 의미와 함께 또 다른 형태의 홍보의 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홍보활동은 약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것 외에도 마약류약물을 사용하는 대상을 조기에 발견하여 상담으로 연결시킬 수 있으며 홍보를 위한 전문적인 자료개발 및 외부기관과 협조과정에서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는 방법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위상강화에도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예방교육사업의 대상, 콘텐츠, 형태의 다양화이다. 교육 사업은 대상에 따라 유치원생 교육과, 초, 중, 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형태에 따라 전통적인 교안을 이용한 수업방식과 조금 더 진화한 방법으로 여러 교구를 이용한 실험 및 참여수업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최근에는 집합교육의 형태로 연극이나 인형극 등과 같은 공연예술을 통하여 수요층의 눈높이에 맞추는 교육에 대한 현장의 수요가 늘고 있고 실제 반응도 좋다. 물론 이러한

흥미와 관심도를 유발할 수 있는 연극과 인형극 형태의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세미뮤지컬 형태의 예방교육 등 대상층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위해서 연극 및 뮤지컬 극단 등 관련 공연단체와의 협조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새로운 시나리오를 생산하는 작업이 필수적일 것이다. 이외에도 청소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집중상담 프로그램 형태의 교육은 교육 강도와 사후관리까지 가능하므로 좋은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여러 교육대상 가운데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중독성약물에 무방비로 노출되기 쉬운 심터생활자, 다문화가정, 노인 등 소외된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 사업을 활성화 다양화시키기 위해서 또 중요한 것이 우수한 강사 배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콘텐츠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이다. 체계적이고 양질의 예방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을 통하여 약물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문제의식을 제기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의 발굴 및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보수교육을 통하여 참여인원의 스펙트럼을 확장하고, 교육에 필요한 자질 및 능력을 향상시키고 질 높은 예방교육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 및 방향성 설정 등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치료재활, 사회복지사업 전문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인력의 확충이다.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는 이미 관련 분야에서 치료재활 전문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기관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약류약물 의존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재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전문 인력 확충은 중요한 요소이다. 약물상담센터 운영을 통하여 약물 의존자 또는 잠재 위험군의 치료재활을 돕고, 사법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교도소, 보호관찰소 등의 마약사범 치료재활교육, 약물수강명령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또한 회복자의 지속적인 관리 및 도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조모임의 형태로 약물로부터 회복한 사례 등을 확보하여 약물문제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전문 치료재활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문 인력의 확충은 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전문기관으로 성장하는데 필수요소라 할 수 있다.

## 결론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온 약물들이 마약류였다는 사실을 인지한 비율이 확연히 증가하였고 심지어 담배를 마약류로 인식하게 된 변화는 약사강사와 치료재활 전문상담자 등 인적 인프라와 지역사회 관련기관과 견실한 네트워크를 구축한 경기도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진행 중인 흡연예방 관



련 사업에도 개입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단서를 제공한다. 또한 대다수의 경기도민이 마약류의 사용은 질병이므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졌고, 마약류와 관련된 대응방안 중 예방교육과 홍보캠페인과 같은 사전 관리적 측면의 접근방식이 중요하였다.

### 참고문헌

- 1) 강은영, 조소연. “약물사용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4.
- 2) 박영수. “마약 중독의 문제인식과 확산방지를 위한 정책적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제16권 1호. 2014
- 3) 윤정수. “성인 약물남용문제에 대한 개입방안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예방적 접근” 서울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02.
- 4) 윤옥한. “청소년의 약물남용 실태 및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한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논문. 2009.
- 5) 이미옥. “청소년의 약물남용에 대한 인식과 태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0.
- 6) 이양훈. “청소년기의 약물남용에 미치는 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13.
- 7) 이인숙. “청소년 약물남용의 실태와 예방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8) 조동기. “청소년의 약물남용실태, 관련요인 및 인식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논문. 2005.
- 9) 채수미. “약물오남용의 실태와 개선방안” 국내학술기사 보건복지포럼 =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통권 제228호. 2015.
- 10) 최성국. “우리나라 마약류범죄에 관한 고찰” 국내학술기사 司法研修院 教授論文集 清研論叢. 제10집. 2013.
- 11)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류 심각성에 관한 국민인식도 조사보고서”. 2015.